

KBS '아이가 다섯' 시청률 30% 돌파

“딸 수현이가 복덩이인가봐요”

아이 돌 싱글 대디 역 안재욱

경쾌하고 빠른 전개로 시청률 사냥

“에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달 됐는데...”

애써 아닌 척 하지만 딸 얘기를 하면 비실비실 미소가 입가를 비집고 나온다. 연기는 ‘홍내대기’라지만 지난달 아빠가 된 안재욱(45)은 이전의 그와 다를 수밖에 없고, 자연히 그의 ‘아빠’ 연기는 ‘진짜’가 됐다.

‘아빠’ 안재욱이 이끄는 KBS 2TV 주말극 ‘아이가 다섯’이 방송 10회 만에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폭풍 뻗어나가고 있다.

‘아이가 다섯’은 사별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 대디 상태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후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미정(소유진 분)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다.

안재욱은 “정현정 작가만 보고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역할보다 대본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주말극으로 하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작가를 믿고 시작했고 역시나 그러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로서 작가가 자기 인물 잘 그려줘서 고맙다고 할 때가 가장 기분 좋는데, 정 작가가 얼마전 내게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다섯’은 전통적인 KBS 2TV 주말극보다 트렌디하고 경쾌해서 출발 전 KBS 내부에서 걱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웰빙, 뚜껑을 열자 드라마는 첫회부터 20%를 넘어서더니 전작인 ‘부탁해요 엄마’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

“자칫 차질 수 있는 이야기를 경쾌하고 밝게 그려서 좋아요. 아프지만 아프지 않게 그리는 점이 장점이지요. 또 전개가 너무 빨라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주말극이 이렇게 빨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인데 주변 20대들이 재미있다고, 빨라도 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드라마를 젊은층도 많이 보고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상태는 두 아이는 물론, 본가와 처가, 동생들 사이에 끼여 많은 짐을 어깨에 지고 있다. 그러나 늘 잔뜩하고 부드러우며 많은 상황을 인내한다.

“솔직히 제 성격으로는 상태가 너무 암전해서 좀 답답하긴 해요.(웃음) 하지만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한 사연을 안고 있는데 너무 밝게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서 초반에는 좀더 캐릭터를 눌러줬어요. 수많은 책임감을 안고 사는 이의 속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있죠. 상태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가족들을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요. 다행히 이런 상태의 모습을 젊은층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하더라고요.(웃음)”

19년 전 그는 원조 한류스타였다. 당시 ‘별은 내 가슴에’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중국 대륙으로도 넘어갔다. 안재욱은 중국에서 대형 콘서트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지금의 중증기 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마흔네에 드디어 짝을 만나더니 지난 달에는 아빠가 된 그는 “결혼을 하니가 내가 없어졌다”며 웃었다.

“지난 1년 내에 대한 투자는 트레이닝북 한두 벌 산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살다가 결혼 하니까 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뭐 하나를 봐도 와이프 사주고 싶고 아기 사주고 싶은 마음 뿐이에요. 술 마실 시간도 없고요. 또 예전에는 술값 계산을 제가 당연히 다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내가 이 돈으로 와이프 뭐 사다 주면 점수를 딸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웃음) 사실 결혼하면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다닐 줄 알았는데 신선도 없이 바로 아기가 생기니까 내가 얼어먹기는커녕 요즘 두 사람 밥상을 차립니다.(웃음)”

안재욱은 딸 수현이를 ‘복덩이’라고 했다. 수현이는 ‘아이가 다섯’ 첫방송 나올 전 태어났다. 제작진도 안재욱이 드러낸 것이 ‘아이가 다섯’에 길조가 됐다고 말한다.

안재욱은 지난 2013년 2월3일 미국 여행 도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후에도 그는 병원에서 한달 가까이를 보내야 했다.

개인적인 행복에 더해 4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도 히트시킨 안재욱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다”며 “‘아이가 다섯’에서도 진정한 성 있는 상태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와 교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해명방송이냐?”

‘SBS스페셜’ 논란 휩싸여

SBS측 “력서리 블로거 고충 담고 싶었을 뿐” 해명 기획 의도와 동떨어진 내용에 항의글 120여개 올라와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 씨가 출연한 ‘SBS스페셜’이 해명을 위한 방송이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SBS는 “해명을 전달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한 SBS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력서리 블로거의 그림자’에는 김 씨와 블로거간 다툼으로 유명한 ‘판교대첩’의 당사자인 조주리씨가 출연했다.

화려해 보이는 유명 블로거의 삶 뒤에 감춰진 이면을 다룬 이 방송은 그러나 강 변호사와의 불륜 루머, 남편과의 이혼 과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씨가 “정신없이 맞은 기분이다. 때리는 손들을 잡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나를 왜곡해서 보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격려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당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줘 비난을 받았다.

특히 김씨의 남편 지인들이 출연해 김씨와 친한 친구 사이라고 밝히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 악성댓글로 고소했던 누리꾼들을 선처해줬다는 내용 등은 파워블로거의 고충을 보여주겠다는 기획 의도와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SBS스페셜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의 질이 많이도 떨어졌다”, “도대체 오늘 방송의 의도가 뭐냐” 등 항의가 쏟아졌고 28일 오후 4시 현재 120여개의 항의글이 올라온 상태다.

SBS 관계자는 “김씨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작진은 기획 의도를 충실히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대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30 MBC 생활뉴스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여유만만	45 기본 좋은 날	10 SBS 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역사저널 그날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 365(재)
12	50 별별가족			05 세계의 라이벌
1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크특선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00 SBS 12뉴스
2 30 직인직실	00 시너지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20 TV속의 TV	50 닥터 365(재)
3	50 위기탈출 넘버원 플러스	05 후드쇼 읽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00 TV유치원	25 MBC 일일특별기획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00 VJ 특강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6	20 KBS 특별생방송 <청년 대한민국 일자리가 미래다>	00 KBS 글로벌 24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2TV 생생정보	15 일일연속극	15 TV블로그 품지락
8 20 먹거리 X파일(재)	30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9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9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00 SBS 8 뉴스
10	00 시사기획 창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	35 KBC 8 뉴스
11 00 천개의 비밀	00 KBS 뉴스라인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55 스타킹
12 20 아내가 불났다	30 한국인의 밥상(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 생활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크 오늘 <불 도다리>
05:30 건강안심	<신호섭의 숙주돼지불고기>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숙주돼지살무침	15:30 피터레빗	<북대서양 4개국을 가다 2부>
(아시아동물기행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사막기차 타고 바다로)
마음의 가족 캄보디아 코끼리)	11:40 한국기행(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21:30 한국기행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코코몽3	<영아리 투어 2부>
07:00 레이디 버그	12:10 시대공간-우리	16:30 코코코 다코(재)	조금 특별한 봄맞이)
07:30 로보카 폴리	12:40 지식채널e	16:45 똥똥똥 뽀로로 1~3(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7:45 뽀뽀뽀 뽀로로	12:50 숨은 한국찾기	17:30 로보카 폴리	우리집 끝내 2부. 아빠의 반성문
08:00 똥똥똥 유치원1~3	13:3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7:45 뽀뽀뽀 뽀로로	22:45 리얼극장 행복
08:45 코코코 다코	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4	<성우 배한성과
09:00 코코몽3	13:50 원더볼즈	19:00 레이디 버그(재)	친엄마 없이 자란 딸)
09:2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19:30 EBS뉴스	23:35 시대공간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50 극한직업 (기름가자미잡이)	24:05 지식채널e(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9일(음 2월 21일 庚戌)

<p>子</p> <p>48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이번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축약을 근두세워야 한다. 84년생 사실은 별것 아니니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9, 88</p>	<p>午</p> <p>42년생 주어진 것만을 다루지 말고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54년생 장고한다면 잠된 결론이 나온다. 66년생 희망의 무지개기 문전에 드러워져 있느니라. 78년생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1, 01</p>
<p>丑</p> <p>49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다. 61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할 필요하다. 73년생 예상은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85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겠다. 행운의 숫자 : 26, 06</p>	<p>未</p> <p>43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55년생 좋은 악은 입에 쓰고 총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67년생 변동은 인내로 극복해가라 생긴다. 79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0, 12</p>
<p>寅</p> <p>50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책하기 힘들 것이다. 62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74년생 잘 살피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86년생 날날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50</p>	<p>申</p> <p>44년생 이채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56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68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80년생 활로를 개척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니 기탄없이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45, 39</p>
<p>卯</p> <p>51년생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63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대처하라. 75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행함이 사라지리라. 87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0, 80</p>	<p>酉</p> <p>45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57년생 서로 관련된 수밖에 없다. 69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되면서 지루하리라. 81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5, 56</p>
<p>辰</p> <p>40년생 현상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52년생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76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88년생 반기는 소식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36, 43</p>	<p>戌</p> <p>46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58년생 외의 요인에 의한 자질이 보인다. 70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82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77</p>
<p>巳</p> <p>41년생 허점이 보인다. 53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65년생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겠다. 77년생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89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0, 20</p>	<p>亥</p> <p>47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 두는 관세이다. 59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71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83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다. 행운의 숫자 : 96, 8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